

'임실N치즈' 최고브랜드 입증

임실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11년 연속 대상 쾌거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임실군이 자랑하는 '임실N치즈'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가공식품분야)에서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환경닷컴, 동아닷컴, MBC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브랜드 관련 시상식이다. 수상자 선정은 주최 측이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브랜드 최상초상기도, 보조인지도, 브랜드차별

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다양한 평가 항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임실N치즈'는 11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브랜드로 위치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

1967년 대한민국 최초로 치즈 생산에 성공한 이래로 57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임실N치즈는 신선한 원유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의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하여 '치즈하면 임실'이라는 네티즌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성장하게 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홀스타인 젖소에 비해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매우 높고 맛이 좋은 '저지방 젖소'를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의 원유를 이용한 프리미엄 치즈 유제품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임실치즈 산업의 명성을 잇고,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실치즈의 역사인 임실치즈 최초공장 故 지정항 신부 삶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임실 치즈 관광산업의 핵심 교두보로 삼아 인근 관광지역과 연계하여 생활 인구 증가 및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여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N치즈'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가공식품분야)에서 11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남원, '2024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구도심 상권 활성화 탄력

남원시는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남원시가 침해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최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로컬크리에이

터와 상인·주민·지자체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한투원의 대표상가인 경의상가를 핵심점으로 육성하고 인접 골목인 남원공설시장, 고생길, 향단로를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광한투원을 찾는 관광객을 주변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등 광한투원 중심의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동네상권발전소 2차 사업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는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 필수 요건인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침체된 광한투원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792명 학생 대상 지역산 과일 간식 공급

남원에서는 18일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관내 79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산 과일 간식을 연 31회에 걸쳐 공급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되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자라나는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2024년 지방비를 편성하여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일 간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1~18세 1회당 과일 섭취량(100~150g)을 적용해 1인 1회 150g 내

외의 조각 과일을 컵이나 파우치 등 신선편이 형태로 위생 용기에 개별로 담아 제공, 사업비는 총 5,650만원(도비 30%, 시비 70%) 정도로, 지원 단가는 과일 간식 1개당 2,100원이다.

공급 과일은 사과, 방울토마토, 포도 등 다양한 제철 과일로 구성되며, 도 공모에 선정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위생설비, 저온유통 체계를 갖춘 남원원협(조합장 김용현)이 군산을 제외한 전북자치도 13개 시·군에 공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남원시,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내년부터 적용"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남원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고,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족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이상 받도록 의무화했고, 현재는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 돼 있으며,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한편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 주변 일대 유채꽃 단지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 일대 유채꽃 물결 장관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력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 주변 일대가 유채꽃으로 뒤덮이며 장관을 연출해 이곳을 찾는 봄철 나들이 관광객들이 증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이 경관보전 직불사업을 통해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며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가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안겨주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채, 헤어리베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꾸리고, 이를 지역 축제와 농촌 관광, 도

농 교류의 기회로 연결하는 특색있는 방안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순창군에는 1,094농가가 경관보전 직불사업에 참여해 861ha의 넓은 땅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체계산 앞 적성뜰에 펼쳐진 유채꽃 단지에 유채가 만발하여 순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작물에 따라 1ha당 100만원부터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순창군은 여기에 추가로 1ha당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봄맞이 행복순창물 농특산물 할인행사

순창군이 2024년 봄을 맞아 순창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순창물'에서 봄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봄맞이 할인 행사는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쇼핑몰에 등록된 전 품목 할인과 신규회원 가입 시 소량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3,000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단, 할인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현재 행복순창물에서는 순창 참두릅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순창 참두릅은 다년근의 재배 기술 향상으로 맛과 향이 우수하며, 큰 일교차와 청정한 환경에서 자라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현재 1kg을 29,900원에 판매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어린이날 대축제 앞두고 막바지 준비 박차

남원시는 오는 5월 5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제102회 어린이날 대축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남원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방문객을 행사의 구성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개막식 축하공연 △기념식 △도보어린이표현수어 △재능공연(K-pop 댄스그룹 및 청소년 동아리 공연) △실내·외 놀이터(에어바운스 8종) △푸드트럭(음료, 닭강정, 분식 등 8종) △드론축구, AI체험, DIY 만들기, 무료 먹거리 나눔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52개의 체험부스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며,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시청(063-620-6218)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imaeil.com에서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